

글로벌 전기차(EV) 시장

사상 최대 20.7M·신차 4대 중 1대 — 중국 주도, BYD 시대

BEV+PHEV 승용·경상용 기준. 기준일 2026-06-15. · 시장 분석 보고서

20.7M

2025 판매

+20%

전년比 성장

25%

신차 중 EV

BYD

세계 1위 제조사

이 브리핑이 다루는 것

01

시장 규모·성장

판매량·신차 침투율 추이

02

지역·세그먼트

중국·유럽·북미 / BEV·PHEV

03

제조사 경쟁

BYD·Tesla·VW 점유율

04

성장 동력·리스크

가격·정책·인프라

05

2026 전망

성장 둔화 속 기회

06

부록·방법

데이터·출처

전기차는 더 이상 틈새가 아니다 — 신차 4대 중 1대

01

사상 최대 20.7M·+20% — 신차 비중 25%

20.7M

5년 만에 3.2M → 20.7M, 6배 이상. 가격 하락과 신모델이 대중화를 견인.

02

중국이 시장의 62% — BYD가 Tesla를 제치다

62%

중국 단일 12.9M, 신차 절반이 EV. BYD 2.26M으로 첫 세계 1위.

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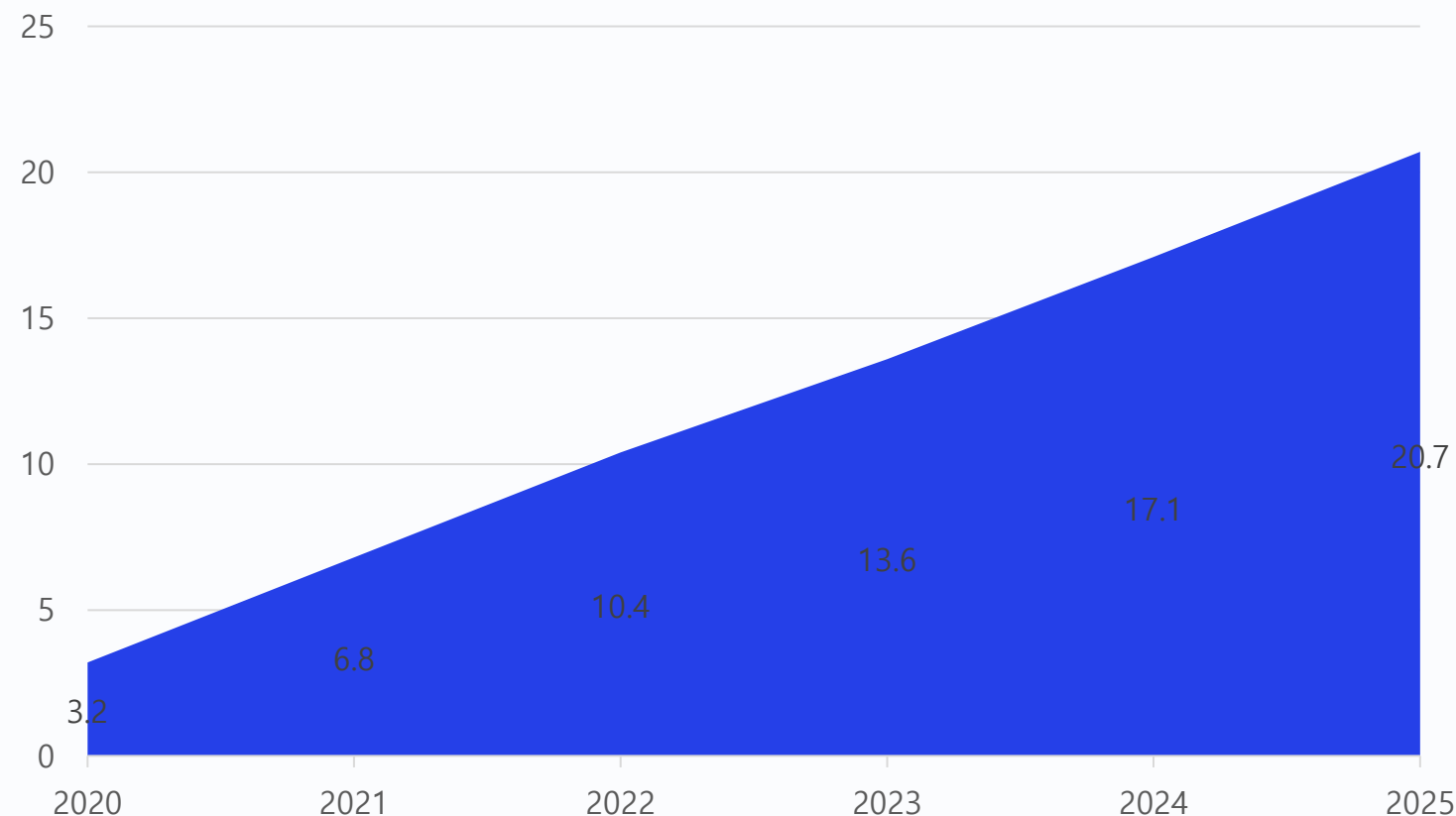
성장은 계속, 그러나 정책·수익성이 관건

−4%

미국 −4%(보조금 만료), 가격전쟁에 따른 마진 압박이 점검 포인트.

5년 만에 6배 — 20.7M 시장으로

글로벌 EV 판매량 (백만 대, BEV+PHEV)



20.7M

2025 판매 (사상 최대)

6.5×

2020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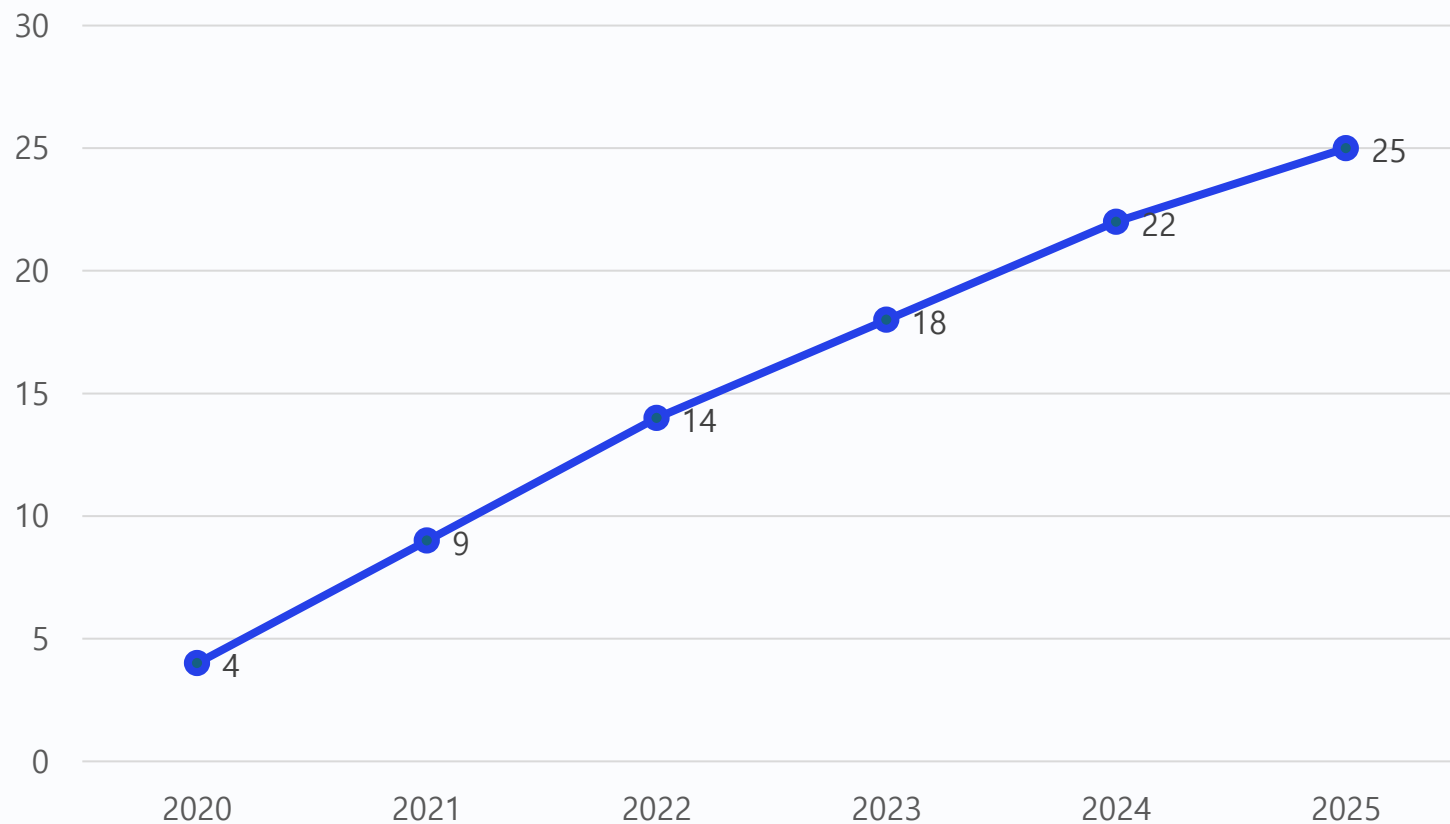
+3.6M

2025 순증 (전년比)

* IEA(2020-21)·Rho Motion(2022-25) 종합. BEV+PHEV.

신차 판매 침투율 4% → 25%

신차 판매 중 EV 비중 (%)



25%

2025 신차 중 EV

97%

노르웨이 (최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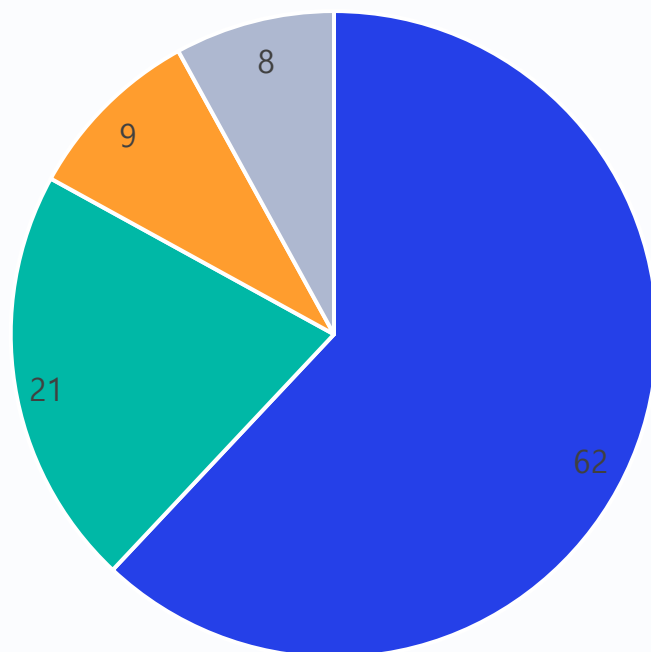
50%

중국 (첫 과반)

* IEA. 2020-22 비중은 추정 반올림.

시장의 62%가 중국 — 압도적 단일 시장

2025 지역별 판매 비중 (%)



■ 중국 ■ 유럽 ■ 북미 ■ 기타

중국 12.9M

점유율 62% · 전년比 +17%

유럽 4.3M

점유율 21% · 전년比 +33%

북미 1.8M

점유율 9% · 전년比 -4%

기타 1.7M

점유율 8% · 전년比 +48%

* 네이티브 파이(슬라이스별 색 지정). 합계 20.7M 대비 반올림.

중국 주도, 유럽 반등, 미국 후퇴

12.9M

중국 · +17%

신차 절반이 EV. 단일 시장으로 세계 62% 차지.

4.3M

유럽 · +33%

CO₂ 규제·신모델로 강한 반등. 가장 빠른 성장.

1.8M

북미 · -4%

미국 연방 세액공제 만료로 유일하게 역성장.

1.7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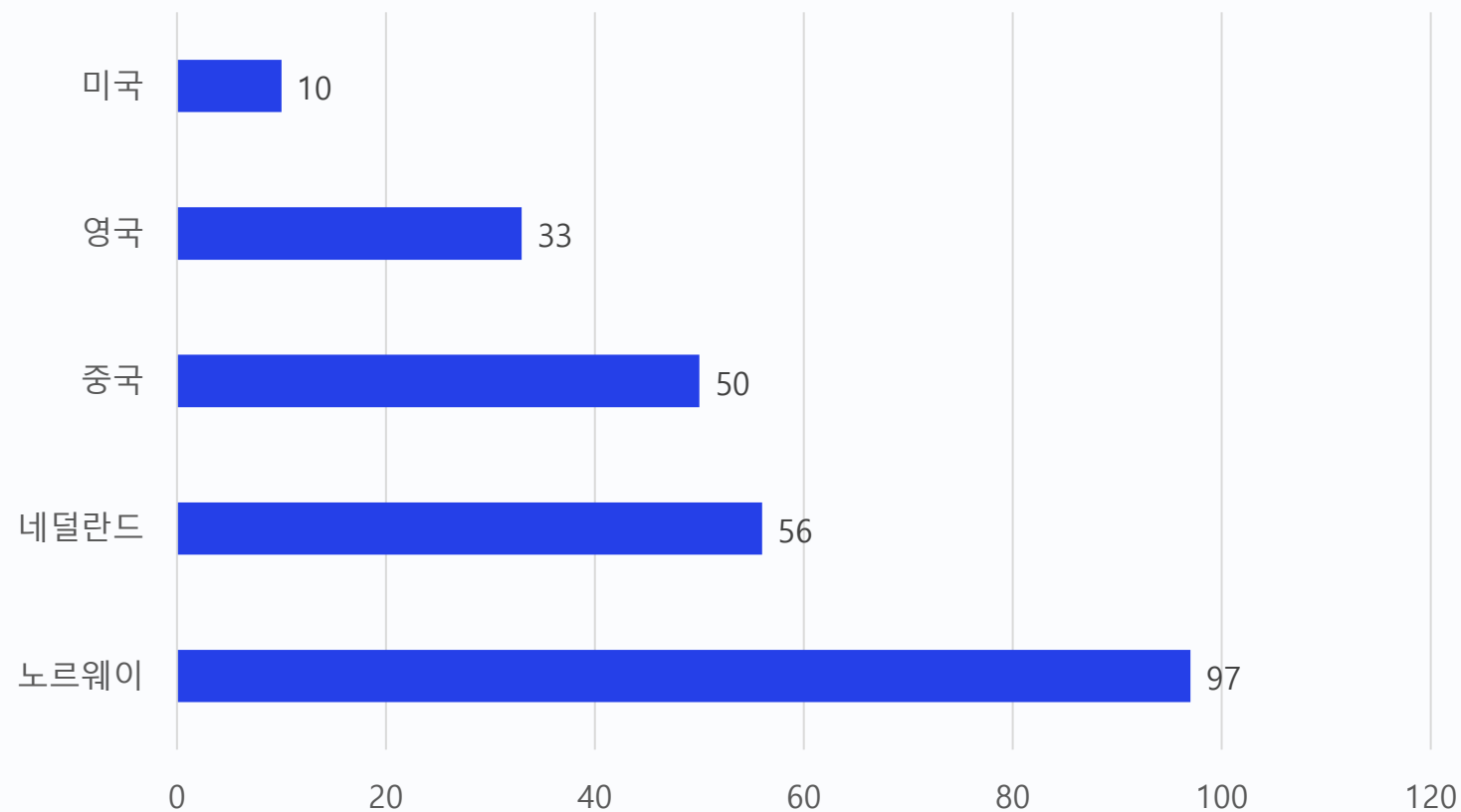
기타 · +48%

베트남·인니 등 신흥국 급성장. 저가 모델 견인.

한 줄 요약 — 성장의 무게중심은 중국과 신흥시장. 선진국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.

침투율 격차 — 노르웨이 97% vs 미국 10%

2025 신차 판매 중 EV 비중 (%)



25%

글로벌 평균

50%+

중국 첫 과반

10%

미국 (정책 역풍)

* Visual Capitalist-Pew-IEA. 정의(시점)별 편차 가능.

여전히 BEV가 약 2/3



≈ 13.3M 순수전기

≈ 7.4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

BEV가 빠르게 성장(+33%)하지만, 중국·유럽에서 PHEV도 견조하다. 과도기 수요가 공존.

* Autovista24/ICCT 2025 9개월 실측을 연간 환산.

BYD가 Tesla를 제치고 세계 1위로

2025 BEV 시장 상위 제조사 — 진짜 네이티브 PowerPoint 표 객체로 작성.

제조사	BEV 판매	글로벌 점유율	전년비
BYD	2.26M	12.1%	+28%
Tesla	1.64M	8.8%	-8%
폭스바겐그룹	0.97M	5.2%	—
상위 3사 합산	≈ 4.9M	≈ 26%	—

나머지 약 74%는 다수 업체가 분점 — 시장은 여전히 파편화돼 있다.

* carboncredits-Statista 교차. 점유율은 글로벌 BEV(약 18.6M) 대비.

BYD — 저가 풀라인업과 수출로 정상에

2.26M

BEV 판매 · +28%

순수전기 기준 세계 1위. PHEV 포함 시 격차 더 큼.

105만대

수출 · +200%

내수를 넘어 글로벌로. 유럽·신흥시장 공략.

32%

중국 내수 점유

홈마켓 지배가 규모의 경제를 뒷받침.

넓은 가격대(특히 저가)와 수직계열화(배터리)가 BYD의 해자 — Tesla와 다른 전략.

Tesla — 정체 속 2위로, 노선 재정비

1.64M

인도량 · -8%

전년比 첫 감소. 라인업 노후화·경쟁 심화.

8.8%

글로벌 BEV 점유

여전히 강력하나 BYD에 1위 내줌.

FSD·로보

다음 베팅

자율주행·에너지로 무게중심 이동 시도.

프리미엄·소프트웨어 전략 대 BYD의 가격·물량 전략 — 두 거인의 경로가 갈린다.

성장을 미는 네 가지 힘

\$108/kWh

가격 하락

배터리 팩 가격 사상 최저 \$108/kWh(2025-12, BNEF), 저가 모델 확대.

62%

중국 주도

단일 시장 12.9M(세계 62%), 신차 절반이 EV.

+48%

신흥시장 도약

기타 지역 +48%, 베트남 ~40%·인도네시아 15% 침투.

+33%

유럽 회복

+33%, CO2 규제·신모델로 반등.

중국 — 세계 EV의 심장

12.9M

2025 판매 · +17%

세계 판매의 62%를 차지하는 단일 최대 시장.

50%+

신차 침투율

주요국 최초로 신차 절반이 EV를 돌파.

가격전쟁

양날의 검

보급은 가속, 그러나 제조사 수익성은 압박.

정부 정책·공급망·내수가 맞물린 생태계 — 글로벌 EV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.

유럽 — 규제가 만든 반등

4.3M

2025 판매 · +33%

가장 빠른 성장. 2024 부진에서 강하게 회복.

CO₂

규제 드라이브

강화된 배출 기준이 제조사 EV 출시를 가속.

1/3

2026 전망

내년 신차 3대 중 1대가 EV가 될 전망(IEA).

노르웨이(97%)·네덜란드(56%)가 선두, 독일 등 대형 시장이 뒤를 받친다.

미국 — 정책 역풍에 유일한 역성장

1.8M

북미 · -4%

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소. 정책 변화가 직격.

10%

침투율

주요국 중 낮은 편 — 성장 여력이자 불확실성.

세액공제

만료 충격

연방 EV 보조금 종료로 수요를 끌어내림.

정책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장 — 보조금·규제 향방이 곧 수요다.

다음 성장 축 — 신흥시장의 도약

+48%

기타 지역 성장

선진국을 능가하는 속도. 1.7M 규모로 확대.

~40%

베트남 침투율

전년比 2배 — 영국·EU를 앞지름.

15%

인도네시아

미국 침투율을 추월. 저가 모델이 견인.

저가 전기차의 등장으로 EV 보급이 신흥국으로 '도약(leapfrog)'하고 있다.

가격이 대중화를 연다 — 배터리 사상 최저

\$108

팩 가격 \$/kWh

2025-12 사상 최저(BNEF). 2024 \$115에서 추가 하락.

저가화

신모델 물결

보급형 EV 확대로 가격 진입장벽 하락.

패리티

내연기관 동등

총소유비용(TCO) 기준 동등·우위 구간 확대.

배터리 가격 하락 → 차값 하락 → 수요 확대의 선순환이 성장의 엔진이다.

성장은 구조적, 단기 변수는 정책·수익성

강세 논거

- ▲ 가격 하락 — 배터리 최저가, 보급형 확대
- ▲ 침투율 25% — 대중화 변곡점 통과
- ▲ 신흥시장 +48% — 새 성장 축 부상

점검 포인트

- 정책 의존 — 미국 -4%, 보조금 축소 위험
- 중국 편중 62% — 지정학·가격전쟁
- 수익성 — 다수 제조사 EV 적자

핵심 리스크 — 정책·편중·수익성·인프라

01

정책 의존

미국 연방 세액공제 만료로 2025 -4%, 보조금 축소
가 수요 직격.

02

중국 편중

시장의 62%가 중국, 지정학·과잉경쟁(가격전쟁) 리
스크.

03

수익성

가격전쟁으로 다수 제조사 EV 부문 적자, 마진 압박.

04

인프라·소재

충전망 격차, 배터리 소재 공급망·규제 불확실성.

05

성장 둔화

2026 성장률 둔화 전망(증분 유지되나 % 하락).

2026 — 성장은 계속, 속도는 둔화

2026 전망

22.7M

예상 판매 (IEA-BNEF)

≈ 25%

신차 중 EV 비중

- 2026 전망 ~22.7M, 신차 비중 약 1/4 — 증분은 유지되나 성장률 둔화(IEA-BNEF).
- 유럽 +~20%로 신차 3대 중 1대 EV 전망, 중국 ~60% 비중 접근.
- 신흥 아태 +50%·중남미 +45% — 저가 모델이 다음 성장 축.
- 관전 포인트 — 미국 정책 향방, 가격전쟁·수익성, 배터리 가격, PHEV 비중.

* 전망치(forecast) — 정책·가격에 따라 변동.

앞으로 12개월, 무엇을 볼 것인가

미국 정책

세액공제·규제 향방 — 최대 변수

가격전쟁

제조사 수익성·구조조정 신호

배터리 가격

\$/kWh 추가 하락 여부

PHEV 비중

과도기 수요의 지속성

중국 수출

BYD발 글로벌 확장 속도

신형시장

저가 모델·인프라 확산

부록 — 연간 시계열

판매량·침투율 원자료 — 네이티브 표 객체.

연도	판매 (M)	신차 중 EV
2020	3.2	4%
2021	6.8	9%
2022	10.4	14%
2023	13.6	18%
2024	17.1	22%
2025	20.7	25%

20.7M

2025 판매

25%

2025 침투율

6.5×

5년 성장배수

데이터·방법

교차

2+ 출처 대조

Rho Motion·IEA·BNEF·Visual Capitalist 교차 확인.

플래그

추정·전망 표기

verified/추정/전망/환산을 슬라이드·주석에 명시.

기준

BEV+PHEV

별도 표기 시 BEV. 제조사 점유율은 BEV 시장 기준.

한계 — 침투율은 정의(시점)별 편차, BEV/PHEV 연간치는 9개월 실측 환산, 2026은 전망치.

자료: Rho Motion · IEA Global EV Outlook · BloombergNEF · Visual Capitalist (기준일 2026-06-15)

다섯 문장 요약

- 1 2025 글로벌 EV 20.7M·+20% — 신차 4대 중 1대(25%)가 전기차.
- 2 중국이 시장의 62% — 신차 절반이 EV, 단일 최대 시장.
- 3 BYD가 Tesla를 제치고 첫 세계 1위(BEV 2.26M).
- 4 배터리 최저가(\$108/kWh)·신흥시장(+48%)이 다음 성장 축.
- 5 2026도 성장(~22.7M)하나 정책·수익성이 속도를 좌우.

■ CLOSING

전기차는 '미래'가 아니라 '현재'다 — 질문은 속도, 그리고 누가 그 속도를 만드느냐다.

기준일

2026-06-15 · 2025 실적 + 2026 전망

자료

Rho Motion · IEA · BNEF

면책

공개 정보 기반 분석 · 투자/구매 권유 아님